

## 연말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 신설' 추진

- 탄소감축 기술이 기업 수익 창출로 이어지도록 제도 마련 -

- 기후 분야 등 딥테크 스타트업 적극 육성 -

- 기획예산처,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 방문 및 간담회 개최

임기근 기획예산처 장관직무대리 차관은 2.11.(수), 오전, 경기도 성남시 소재 기후테크 스타트업(에이올 코리아)을 방문하여 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 현황을 살펴보고, 기후 분야 스타트업들과의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국가창업시대 개막을 위한 창업·성장 지원방안을 논의하고,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 관련 현장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마련한 자리로, 임기근 장관직무대리는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할 계획임을 밝히고, 정부의 딥테크 스타트업 육성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 < 기후테크 스타트업 현장방문 및 간담회 개요 >

- 일시/장소 : '26.2.11.(수), 10시 / 주식회사 에이올 코리아 (경기 성남시)
- 참석자 : (정부) 기획처 장관직무대리 임기근 차관, 중기부, 기후부  
(기관) 창업진흥원, 한국벤처투자  
(기업) 그린웨일, 더카본스튜디오, 수퍼빈, 아이이에스지, 에이올코리아, 이유씨엔씨, 포네이처스

금일 방문한 주식회사 에이올코리아는 2018년 설립된 기후테크 스타트업으로, 탄소 포집·감축, 유해가스 분리, 수분 흡착 소재 등을 개발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4년 CES에서 혁신상을 수상한 바 있다. 기후테크는 제품 생산·유통·소비 과정에서 탄소감축에 기여하는 혁신기술을 말하며, 주로 재생·대체에너지 생산, 탄소 포집·저장 기술개발, 자원순환 기업 등을 포함한다.

이날 간담회에서 임 장관직무대리는 “녹색 전환을 비용이 아닌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정부는 탄소중립 및 에너지 전환 지원 예산을 '25년 6조원에서 '26년 8조원으로 크게 확대한 데 이어, 금년 상반기 중으로 재정·세제 지원, 규제 개선 방안 등을 망라한 한국형 녹색전환(K-GX) 전략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기후테크 기업들의 탄소감축 혁신기술이 수익 창출로 이어질 수 있도록 연말을 목표로 ‘자발적 탄소시장\* 거래소를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 [참고] 배출권거래제 : 年 배출량 12.5만톤 이상 업체 대상 → 중소·벤처 미적용  
 자발적 탄소시장 : 중소·벤처도 탄소감축 기술을 통해 획득한 크레딧 거래 가능

아울러, 임 장관직무대리는 “딥테크 스타트업은 한 기업의 성공이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전후방산업 동반성장을 견인하는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고 언급하며,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펀드 등 모험·인내자본 확충과 긴 호흡의 R&D 지원을 통해 정부가 혁신을 가속화하는 역할을 하겠다”고 발언했다.

한편,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들은 공동활용 생산설비 구축, 모험·인내자본 활성화, 해외시장 진출 지원 등 기후테크 스타트업의 성장 촉진을 위한 정책을 건의하였으며, 임 장관직무대리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정·세제·금융 지원, 공공 조달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초혁신경제 구현과 경제성장률 제고를 위해 경제·산업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소통과 협업을 통해 해결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혁신경제전환과	책임자	과 장	신명석 (044-214-1630)
		담당자	사무관	김재현 (z56543@korea.kr)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탄소중립정책과	책임자	과 장	진승우 (044-214-1650)
		담당자	사무관	윤다원 (Oneforal1@korea.kr)